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22 사도행전 - 두 번째 및 세 번째 선교 여행

Ted Hildebrandt 박사 지음

A. 소개 [00:23-01:39]

A: AC **결합**; 00:00-6:52; 2MJ에서 필리피까지

환영합니다. 다음 시간 안에 사도행전을 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행전 초반, 교회가 시작될 때 베드로와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순절과 사도행전 2장과 방언에 대해 이야기했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 마가를 키프로스에서 안디옥, 이고니온, 리스트라와 더비로 추적했고, 바울은 리스트라에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때리고 돌로 쳤습니다. 그런 다음 돌아와서 첫 번째 선교 여행 후에 우리는 서기 50년이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날짜라고 말했습니다. 서기 50년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과 이방인이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 회의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아마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서기 50년 직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거기서 시작할 것입니다.

B. 2차 선교 여행: 리스트라의 디모데 01:39-4:43]

우선 , 우리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이 그들이 모두 시작하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될 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야,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자. 요한 마가를 데리고 다시 가자."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내 시체를 넘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이 심해서 바나바가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와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고향 인 키프로스로 돌아갔습니다 . 그런 다음 그들은 사라졌고 이것이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 들은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나바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이고, 서기 50년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발했을 때 그들은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 키프로스로 가는 대신 그들은 다소를 지나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타르수스에서 출발하여 다시 데르비, 리스트라 , 이고니온 , 피시디아의 안티오크를 거쳐 올라갔습니다 . 이곳은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곳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그는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리스트 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기 때문에 흥미로웠고, 불구자를 고쳐준 덕분에 리스트라 에서 헤르메스와 제우스의 신이 되었습니다 . 디모데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제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 때 요한 마가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 도우미로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주의하세요. 매우 흥미로운데, 사도행전 16:3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그를 할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방금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리스트라에 가서 디모데를 데려왔을 때, 그가 디모데에게 한 첫 번째 일은 그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습니다. 바로 작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을 때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디모데가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할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디모데이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구원이나 반드시 큰 신학적 진술이 아닌 편의적 목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이봐, 우리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기 위해 사역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신학적 진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시점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그와 합류하여 안디옥, 이고니온, 리스트라로 갑니다.

C. 두 번째 선교 여행: 트로아에서 온 루가 [4:43-6:52]

바울은 에베소로 가고 싶어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에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이고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고 싶어합니다. 대신, 성령이 기본적으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트로아스로 향합니다. 트로아스는 여기 북쪽, 북서쪽 모서리에 있습니다. 트로이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트로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일리아스* 와 호머가 쓴 *오디세이가 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트로아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차 선교 여행에서 리스트 라는 디모데를 태워서 트로아스로 가면서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즉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10에 나오는 트로아스에서 마케도니아 부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 밤에 본 환상 속에서 와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마케도니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갑자기 “우리”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의 두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그가 트로아스에 도착했을 때, 누가 배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스트라에서 디모데를 태우고 트로아스에서 누가를 태웁니다. 갑자기 “우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로아스는 그가 이 마케도니아 부름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는 이제 빌립보에서 첫 유럽인 개종자들을 위해 유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는 소아시아와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여행하게 됩니다.

다. 두 번째 선교 여행: 빌립보 [6:52-16:22]

B: D만 결합; 6:52-16:22; 2MJ 빌립보

그럼 그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 우선 ,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출신인 사람은 또 누구인가요? 제가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수업 초반에 마케도니아의 빌립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빌립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곳은 마케도니아의 빌립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강가로 나간 건 흥미로운 데 , 회당이 없거든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회당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당시에는 회당을 만들려면 열 명의 장로, 즉 가장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회당을 만들려면 열 명의 가장이 있어야 했고 ,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서 만나고, 거기에 개종한 여자가 있는데, 첫 번째 유럽인 개종자, 그녀의 이름은 리디아입니다. 그녀는 보라색 장수입니다. 티티라 출신이고 , 그래서 그녀는 보라색을 팔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부유한 여자, 재력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디아가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7절 이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귀신이 씩인 소녀를 데리고 있습니다 . 그녀는 미래를 말할 수 있어서 그들은 이 소녀와 함께 일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녀를 노예로 삼아 돈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와서 이 귀신을 통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글썄요, 이 소녀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옵니다. 바울은 마침내 그녀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일을 알리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는 약간 화가 나서 돌아서서 이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녀는 그녀를 이용해 돈을 벌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주머니를 때리면 그들은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녀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에 갇혔습니다 . 그들은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감옥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종의 주인들이 이것은 사도행전 16:19입니다 : "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시장으로 끌고 가서
 관원들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거기에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고, 당신이 아래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진정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열
 명 미만의 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우리 로마인이
 받아들이거나 실행하는 것이 합법적인 관습을 옹호함으로써 우리
 도시를 소란스럽게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이지 않는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여겨졌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주인의 피와 그의 몸을 먹었기 때문에 식인종으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와 결혼했기 때문에 근친상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잘못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로마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관습을 옹호하며
 도시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었고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문을 열고 족쇄가
 떨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풀려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로마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인은
 무엇을 할까요? 감옥 문이 열려 있었고 그들은 흥미로운 과정으로 옷을
 벗고 구타당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감옥 문이 한꺼번에 열리고 모든 사람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간수가 깨어나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칼을 뽑았고 죄수들이 탈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죄수들을 지키는 것은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 죄수들은 풀려났고 그들이 탈출하면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 총독이나 정부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기보다는 자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바울이 “자신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고 소리친 것입니다.

간수 가 등불을 달라고 하고 달려들어 바울과 실라 앞에 떨어져 엎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고전적인 대사인데, 사도 행전 16장 30절 이하입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분명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가장 분명한 답변 중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요점을 잘 짚은 솔직하고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집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분명한 진술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분명한 진술 중 하나이며 빌립보 간수로 알려진 이 사람에게 주어진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 말입니다. 모두가 “예,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이걸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이것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미 그 신앙의 진술에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학생 친구가 이 종파에 가담했는데, 그들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믿고 죄 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 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컬트적인지 보셨나요? 다른 사람의 세례나 다른 교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통해 통제합니다. 이것은 매우 컬트적인 성향입니다. 제 학생 친구가 그들과

어울려 실제로 돌아와서 저는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강의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떠났고 마침내 4, 5년 후에 그는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기본적으로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매우 컬트적인 관행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신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컬트적인 방식으로 그런 종류의 것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방언을 말했을 때 언급했던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체성 운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방언으로 말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실제로 당신에게 내려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방언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컬트적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우리의 속임수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런 컬트적인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 반례 중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도둑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 두 명의 도둑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어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당신의 왕국에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방언을 말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도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E. 믿음의 본질 [16:22-31:47]

C: E만 결합; 16:23-31:47; 2MJ - 빌립보, 믿음의 본질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교회에서 전통적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믿음은 사실을 아는 것을 요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팔레스타인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러 오십니다 . 여러분 중에 사도 신조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종류의 것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확실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첫 번째 부분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뭔가를 믿으려면, 그 뭔가에 대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 육체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500명이 보았고, 12명이 보았고, 에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보았고, 의심하던 도마가 보았고, 나중에 바울이 보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에마오와 갈릴리의 다양한
 환경에서 모든 다른 장소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모든 다른 상황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 여성, 남성, 다양한 맥락에서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일반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을 통해 오는 용서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속적 속죄라고 불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은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런 다음 이러한 사실이 사실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은 당신이 신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언가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일부가 되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뉴욕 나이아가라 폭포에 버크홀츠 라는 집이 있었는데, 아주 작은 집이었고 지붕이 꽤 편평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지붕 위로 데려갔어요. 그때 제가 세 살쯤 되었을 거예요. 아버지와 저는 지붕 위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붕에서 뭔가를 고치고 계셨고 저는 거기에 있었고 어머니는 아래에 계셨어요 .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뛰어내리라고 하셨어요. 지붕에서 뛰어내리면 어머니가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정말 멋진 거야. 공중을 날 수 있을 거야. 아래로 내려가면 어머니가 잡아줄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지붕에서 뛰어내려 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잡아줄 거야. 저는 세 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 지붕으로 달려내려가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큰 손이 왔는데,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제 셔츠 뒤를 잡고 들어올리며 “뭐하는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뛰어내리라고 해서 뛰어내려요. 날아가려고 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농담이었어요. 지붕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당신을 붙잡을 수 없을 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를 절대 믿지 마세요. 어쨌든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점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사실에 자신을 맡길 때이고, 실제로 신앙의 도약을 할 때입니다. 실제로 그 사실을 신뢰합니다. 저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것이 저에게 해당되며 이제 저는 그 사실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고, 그것을 보는 세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행위가 그것에서 따를까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매우 빠르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 예수님을 반영하지 않는 것 같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믿는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자신을 맡기고 그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들이 말했듯이 죽은 것입니다.

저는 Probo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디애나 주립 교도소의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Grace College에서 가르쳤고, 밤에는 Grace에서 가르친 제 친구 Ken Taylor와 함께 차를 타고 1시간 30분 동안 교도소까지 운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7개의 문을 통과하여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최고 보안이었습니다. 40피트 높이에 두께는 약 10피트였습니다. 1863년쯤 남북 전쟁 무렵에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최고 보안이었습니다. 모든 큰 놈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었고, 35년, 25년, 그런 종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Probo 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존 숄츠]. 교도소에서는 그의 이름이 Probo 였습니다 . 그는 베트남 참전 용사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되어 있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참전 용사였고 특수 부대에서 훈련을

받았고 베트남에는 비무장 지대인 DMZ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를 비무장 지대 반대편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를 내려놓고 기본적으로 손에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총을 가지고 있고 총을 쏘면 소리가 나고 사람들은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고 사람을 죽이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무장 지대 뒤로 내려갔고 그는 그냥 들어가서 그 당시 베트남 몇 명을 죽였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제 말은, 이 사람은 매우 높은 훈련을 받았고, 하는 일에 매우 능숙했고, 그는 살아서 들어갔고 나왔고, 베트남 전쟁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 말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왔고, 어느 날 밤 술집에 있었는데 두 남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글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Probo를 덮치지 마세요. 그는 하는 일에 매우 능숙하고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매우 훈장을 받은 군인이었고 퍼레이드와 미국으로부터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술집에 있었고, 두 남자가 그를 덮쳤고 그는 플래시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에게 반사신경과 같았고, 거기에서 당신은 그의 옆에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모두 손으로 죽였습니다. 그는 지금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35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고 감옥 에 있을 때 그는 약 55세였습니다 . 그가 풀려났을 때 그는 약 55세였습니다. 저는 그가 45-55세였을 때부터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Probo를 건드리지 않았고 모두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고 그것은 "예, Mr. Probo " 였습니다. 그는 온몸에 문신이 있었고, 그는 일종의 Hell's Angel Harley Davidson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프로보 를 건드리지 않았습니 다 . 아무도 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수업을 들었고,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노트를 한 번도 적지 않았습니 다. 구약 성경 수업이었고, 수업 시간에 노트를 한 번도 적지 않았습니 다. 그는 항상 저에게 성경에 반대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 그가 성경을 반증하려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성경은 박쥐가 새라고 말하지만, 물론 박쥐는 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레위기가 사물을 분류하는 방식 때문에 어떻게 옳을 수 있을까요? 그는 여러 번 성경의 "오류"에 대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정말 좋았습니다. 저에게도 좋았고, 그에게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왔고,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본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처음 본 것은 그가 당시 55세 정도였고, 그는 알고 있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는 제 구약 성경 수업에서 메모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시험을 볼 때, "좋아, 프로보, 네가 시험을 볼 거니까 네가 까마귀 먹는 것을 지켜볼 거야. 너는 메모를 하지 않았잖아. 너는 이 시험에서 낙제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험을 보고,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프로보의 문제는 그가 사진적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단어 단어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한 말을 단어 단어 단어로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어 단어 단어로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는 그가 명령을 받았을 때 그를 훈련시켰고,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고 모두 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명령은 거기에 있었고, 그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처음 본 것은 그가 35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매우,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고든 칼리지라는 곳에 왔습니다. 저는 프로보를 위해 기도했고 그는 항상 그의 할리로

저를 뽀뽀거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고 언젠가는 제가 듣고 이 할리의 울부짖음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들어보셨다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는 저를 뽀뽀거리게 할 것이고 저는 그가 그레이스 칼리지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고든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언젠가 프로스트 홀에서 이 할리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큰 문신을 한 남자를 보면 겁에 질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저는 그를 위해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시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건, 제가 가르쳤던 곳에서 지금은 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프로 보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코트가 걸려서 시속 55/60마일로 오토바이에서 가드레일로 튕겨져 나가서 즉사했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났어요. 마치 제가 2년 전에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사진에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열린 ETS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해야 했는데, 론 클러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점심을 먹으러 나갔고 론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존 슐츠 기억나?
 옛날 프로보 ?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레이스에서 그가
 죽었다는 걸 말해주지 않아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어집니다.

론과 저는 다시 앉았고 그는 이것이 프로보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기독교인 소녀와 결혼했기 때문에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프로보가 왜 기독교인 소녀와 결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언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론은 프로보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를 소매에 걸치고 얼굴에 대고 "오, 네, 저는 작은 공식을
 말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바꾸셨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공개한 적이 없지만 그의 삶은 바뀌었고 그것이
 그가 기독교인 소녀와 결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프로보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으로 자신을 그 믿음에
 바쳤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이 있습니다. 말은 싸구려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삶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를 반영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위선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군가가 할리를 타고 돌아다니고 그가 할리를 뱅뱅거리며 나를 찾는 것을 본다면, 그냥 힐데브란트가 진주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프로보에게 나와서 나를 데리러 가라고 하면 그와 함께 타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꽤 이상했어요.

요점은, 구원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6:9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빌립보 감옥장이 말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문화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바꾸었는지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나 "구원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 정의나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복음에서 벗어나 지금은 어머니 지구를 구원하거나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런 대의에 열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들을 연결하려고 하고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사회 정의를 옹호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매우 적합합니다. 우리 문화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리를 쓰다듬어줍니다. 저는 지금 우리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요 중의 주요"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주요 중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을 알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신뢰한 다음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장이고, 루디아는 보라색 장수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에서 트럭을 몰고 나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빌립보에서 "우리"가 정차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트로아스에서 빌립보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우리"가 정차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갔지만 "그"는 이렇게 했고 "그"는 저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는 2차 선교 여행에서 트로아스에서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멈춥니다.

E.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31:47-33:52]

D. EG를 합치다; 31:47-48:48; 2MJ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관습대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7:5입니다. 그는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함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과 저명한 여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이 믿으면 유대인들이 질투하게 되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 야손의 집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뒷문으로 나가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현대의 데살로니키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야손의 집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재빨리 도망가서 그곳에서 나와 도망칩니다. 그들이 그를 고발한 이유는 그가 카이사르 대신 다른 왕인 예수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근거로 바울을 쫓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 베레아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 성경 예배당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길을 따라 내려간 곳입니다. 이들은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에 있는 세 도시입니다. "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열의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알려진 이유입니다. 베레아 성경 예배당이나 베레아 성경 연구라고 말할 때 ,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보기 위해 매일 성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조사하여 사물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야손의 집을 때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했습니다.

F. 아테네 [33:52-40:20]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아테네로 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에서 아테네로 향합니다. 아테네는 가장 유명한 그리스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마르스 언덕에서 철학자들에게 말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 "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최신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의 위대한 고향이었습니다. 아테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철학자들의 위대한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가서 말합니다. “내가 걸어다니면서 여러분이 경배하는 대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경배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 섬기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분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스 시인 중 한 명인 아라투스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자손이므로 신성한 존재를 은이나 금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러한 맥락에서도 에피메니디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테르툴리아누스가 묻는 큰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긴장은 종교의 장소인 예루살렘과 철학의 장소인 아테네 사이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문화와 충분히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예를 들어, 그는 알려지지 않은 신의 동상을 가지고 가서 지금 당신에게 그것을 선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문화에 있는 것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투스과 에피메니데스 의 말을 인용 하고, 그리스 작가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매우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그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그가 전파하려는 그리스도와 그들의 문화 사이의 연결, 연결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안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를 알고 문화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철학을 알아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 오늘날의 철학을 알아야 할까요? 답은 '예' 입니다. 고든 칼리지와 같은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자유과학입니다 . 여기에는 놀라운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철학을 공부할 때 문화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철학을 뒷받침하는 주요 영향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기본 철학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것들과 상호 작용합니까? 바울이 말했듯이 일부 철학은 사실입니다. 거둬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이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철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분류합니다 .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가? 우리 문화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실제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공격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역사를 공부합니까? 우리는 영어 수업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디지털 매체에서 복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귀에 꽂은 채로 듣고, 텔레비전 화면, 패드, 전화, PC, 랩톱에서 보는 측면에서 우리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이 디지털 매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새로운 매체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해해야 하므로 소통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음악, 예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작업하는 모든 종류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기초인데, 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면 아서 홈스가 아마 가장 잘 해냈을 겁니다. 그는 이 분야에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신의 진실입니다." 모든 진실은 신의 진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했고, 생물학을 했고, 화학을 했고, 물리학을 했습니다. 그런 학문이 종교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신은 과학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과학을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언어인

수학에서도 사실입니다 . 그것을 이해하고 우주가 어떻게 기능하고, 사물이 어떻게 질서를 이루고, 어떻게 수학적으로 사물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매우 유창하게 말합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의 언어로, 그리고 그들의 시인과 철학자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의 기반 중 하나에 대한 일종의 기초입니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과학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기반입니다. 예루살렘은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든 것. 고린도

전서 [40:20-48:48]

아테네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갑니다. 우리는 이 다른 것들 중 일부에 대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여기가 바울이 정착한 곳,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서 그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모든 도시를 지나 리스트라 에서 디모데를 태웁니다 . 그는 트로아로 올라가서 누가를 태웁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와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 간수를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이 공격을 받습니다 . 베레아에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테네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자신의 일을 한 다음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1년 반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에서 거의 2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 18:1을 보게 되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디오 출신으로 얼마 전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굴라는 왜 이탈리아에서 왔을까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아굴라는 남자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서기 49년경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한 것에서도 반유대주의가 나타납니다 .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났고, 그것은 여기로 가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와 고린도의 관계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선원들이 펠로폰네소스를 빙빙 돌며 항해하는 대신, 여기 이 멋진 항구로 항해를 한 다음, 짐을 내리고 여기 7마일 지협을 건너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고, 그런 다음 에베소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바위가 많은 해안선을 돌아다니지 않고, 여기로 들어가서 짐을 내리고 다시 짐을 싣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말해야 합니다. 그는 실제로 천막을 만듭니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는 분명히 천막을 만듭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곳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천막 제작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죽은 선교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8년 동안 선교사로 일했고 안과 의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시력을 도왔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하는 안과 의사였습니다. 탈반이 그를 붙잡아 도살하고 죽인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그는 일종의 선교사였지만 실제로는 천막 제작자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들에게 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레이스에서 일했던 전 대학 시절의 학생 친구들이 독일로 갔는데, 그 중 한 명은 건축가였고, 한 명은 엔지니어였고, 세 번째

친구는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가서 독일 선교사가 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건축 배경을 살려 독일에서 일했어요. 다른 한 명은 엔지니어였고, 독일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그는 아마 메르세데스 벤츠를 디자인했을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후 독일의 교회에서 일했어요. “천막 만들기”라고 해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을 만들었다는 구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들이 한 일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는 미국의 유대인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학교에서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치지만, 아이들에게 실용적인 기술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불렸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목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는 아버지의 직업을 배웠습니다. 그는 또한 토라와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그 둘 다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를 기억합니다. 직업 훈련은 학문적이지 않고 우리보다 낮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실용적인 기술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지성과 기술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랍비였고 가말리엘 밑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천막을 만드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스스로를 부양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서 나중에 나올 내용인데, 바울은 여러분이 저를 부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린도는 부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부를 하나도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제 사역을 방해하고 싶지 않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은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왔잖아요. 저는 여기 있는 동안 천막을 만들고 스스로를 부양했어요."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독립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제가 와서 선교사이고, 여러분 모두가 저를 지원해야 하는 것처럼 자격을 갖춘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큰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바울은 손으로 일하고, 스스로를 부양하고, 사업을 돌보았습니다. 그게 고린도에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과 함께 사역했고, 그는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 그는 1년 이상 거기에 머물렀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또 다른 것은 바울이 왜 고린도에 그렇게 오래 머물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도시에서는 바울이 구타를 당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회당 지도자 크리스보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회당 지도자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회당 지도자가 아니었던 소스데네가 다른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리오 앞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 갈리오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소스데네는 바울을 이방인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갈리오 총독이 이것을 보고 "이들은 다투는 유대인 무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저는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법정에서 내쫓습니다. 그는 고소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소스데 네가 바울을 고소하고, 갈리오 총독이 그를 법정에서 쫓아내며, "여기서 나가. 이건

쓰레기야. 나는 이걸 다루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고 쫓아냅니다. 소스데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구타당하는 대신, 소스데네가 구타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도 그때 구타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이 마음에 들어. 잠깐 여기 머물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반 동안 여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그 중 일부의 배경이 되고,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인물이 되는 아폴로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폴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고린도에서 주요 세력이 됩니다. 바울은 그를 알고 그와 교류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와 교류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는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날짜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야 할 날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서기 50년, 그 바로 전인 1차 선교 여행 서기 48, 49년, 그리고 바로 뒤인 2차 선교 여행 서기 51-52년입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예루살렘 공의회, 2차 선교 여행은 주로

고린도에서 2년을 보냈지만, 그는 리스트라, 트로아스, 빌립보를 거쳐 루가와 디모데를 태웠습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3회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쁠 것입니다.

H. 1, 2차 선교여행 리뷰 [48:48-52:56]

E: HJ를 합치다; 48:48-60:56; 3MJ를 에베소로

그러면 3차 선교 여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잠깐 살펴보죠. 여기 실제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죠.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은 리스트라를 치고[1MJ], 디모데를 데려가[2MJ], 예루살렘 공의회 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습니다. 디모데는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응하고 유대인들에게 거슬리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트로아스로 갔지만 성령께서 에베소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시아 지방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트로아스로 갔고 그곳에서 마케도니아 부름을 받았습니다. 환상을 본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와 아시아 지방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는 트로아스에서 합류했고, 여기서 "우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트로아스에서 빌립보로 갔다가 멈춥니다. 그래서 누가는 트로아스에서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는 보라색 장수였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여성으로 티아티라 출신의 보라색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강가에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회당은 없고 유대인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반유대주의적 압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울은 구타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실라와 함께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간수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세 가지 수준과 행위, 그리고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관습대로 회당에 갑니다.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질투와 반응이 있었고, 그런 다음 기본적으로 그들은 제이슨의 집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군중이 그를 잡기 전에 도망칩니다. 그들은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고귀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탐구했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으로 갔습니다. 마르스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테네에서 마르스 언덕이 보이는 큰 건물은 바로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신을 위한 제단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에피메니데스 와 아라투스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철학과 다른 학문을 아는 것; 이것은 자유과학에 대한 우리의 근거의 일부입니다. 아테네와 철학사에서 자유과학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기 전에 믿어야 합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큰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모던 문화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모던 문화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화 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서 그는 고린도로 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1년 반을 보냈습니다. 이곳은 큰 곳입니다. 클라우디우스 치하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쫓겨났고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회당장 인 크리스보가 실제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독특한 일입니다. 그런 다음 소스데네가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이 아니라 소스데 네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는 이곳을 좋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갈리오는 바울에 대한 고발을 매우 맛있게 일축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그가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그는 성경과 구약에서 강력한 사람인 아폴로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서 그는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쓰고 기본적으로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에게 지원을 가져온 디모데에게 다시 보냅니다.

I. 제3차 선교 여행 [52:56-54:07]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3차 선교 여행에 대해 훌륭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은 제2차 선교 여행 이후에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서기 50년, 제2차 선교 여행은 서기 50-52년입니다. 이 3MJ는 그 이후에, 대체로 서기 53-57년에 올 것입니다. 날짜를 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제3차 선교 여행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베소에서 보낸 3년입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보낸 3년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에서 보낸 2년이었습니다. 사실 1년 반입니다. 제3차 선교 여행, 에베소에서 보낸 3년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로 가고 싶어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세 번의 선교 여행이 모두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에베소로 곧장 향합니다. 그는 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에 머물 예정이며, 그곳에서 3년을 보낼 것입니다.

J. 에베소 [54:07-60:56]

이제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 일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그는 세례 요한의 옛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그는 “이봐, 여기서 무슨 일이야? 성령에 대해 아는 게 있어?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니, 우리가 아는 건 세례 요한에 대한 것뿐이야. 그는 우리에게 세례를 주었고,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없앴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손을 얹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티란노 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발전시켰고,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책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법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책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책을 불태우기 시작했고, 에베소에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 데메트리우스는 은세공인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다산의 신, 사랑의 여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온갖 부도덕함이 관련 되었습니다 . 우리가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여신을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관능적이고 타락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소문에 따르면 운석이 떨어져 땅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석이 떨어졌고 그들은 이 운석을 파냈고 이 운석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이 신과 여신을 아르테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아르테미스나 이슈타르와 다른 신들, 바알과 이슈타르의 동상을 무역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세공인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사업은 망했습니다. 좋은 사업 모델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을 잃고 있습니다 .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모았고 사람들은 "에베소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에베소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신들을 숭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돈을 잃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바울을 반대하고 카인을 키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돈과 종교가 오늘날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는 그런 다음 이 기독교인들이 이 모든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문화권 사람들은 기독교가 나쁘다고 어떻게 선언할까요?
 우리 문화권 사람들은 우리와 동의하지 않을 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보스턴 지역에 있다는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스턴 글로브를 올해 더 잘 읽으 셴다면 , 저는 그 미친 신문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약 5년 동안 신문의 일선은 똑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단어를 돌렸고 똑같은 반-반-반-저런 종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가톨릭 신도는 아동 성추행자이고 그래서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정말, 정말 비난했습니다. 아동 성추행은 실제로 정말 나쁩니다. 저는 그것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론이 정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
 한 남자가 있는데 , 제 아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영화, 음식, 소설”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에서 무신론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우리는 무신론에 열려 있어야 하므로
 무신론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무슬림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게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정말 고민하고
 있었고 선생님은 그것을 이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끔찍하고 역겨운 위선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토론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인은 역겹지 않나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만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갑자기
 그들은 정말 불쾌하고 편협한 말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느낍니다. 기독교인에 대해 편협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고든
 예배당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프랭키 라고 부르겠습니다
 . 그는 솔직하지 않고, 그저 머리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그는
 들어와서 기독교가 "탈레반"과 같으며 기독교에 대한 정말 끔찍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근본주의 기독교는 탈레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에 대한 증오 표현 측면에서 이런 종류의 모든 것을
 합니다.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은 증오 표현과 이런 종류의 모든 것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가 그 남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매우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

프랜시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는 관용의 이름으로 기독교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아이러니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관용적이어야 하는데, 그는 많은 근본주의 기독교인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거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친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제 그들의 아들은 구약성경의 히스기야와 비슷합니다. 그는 좋은 왕이었지만,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들 마나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고, 정말 경건한 부모님이 계셨고, 이제 그는 어른이 되었고, 제 나이인데, 이제 그는 아버지가 가르쳤다고 생각하며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름을 떨쳤고, 당신은 정말 슬프고, 정말, 정말 슬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마도 가장 나쁜 일이고,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는 정말 여러 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K. 제3차 선교 여행: 고린도서 [60:56-62:15]

F: KN **결합**; 60:56-74:37; 3MJ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비난은 바울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고, 그는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의 여신 아르테미스라고 소리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 있는 동안 그는 티란노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 그의 다른 가장 좋아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그의 다른 가장 좋아하는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은,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를 쓸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오가며 여행했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바울에게 "바울,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문제에 대해 듣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성찬식에서 취합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들을 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을 쓸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이제 알다시피, 바울은 우리보다 고린도인들에게 더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언급된 다른 고린도 편지, "눈물 편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중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또는 그가 제3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인들에게 쓴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고린도는 매우 큰 책임입니다.

L. 제3차 선교 여행: 에베소와 바울의 서신 [62:15-67:45]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에베소를 떠날 것이고, 에베소를 떠날 때 마케도니아를 거쳐 올라갈 것입니다. 그는 다시 트로아를 거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고린도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에서 이것은 바울에게 큰 선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식량이 없는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사용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사회 정의적 대응인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정말 좋은 기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로 향하고, 그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누가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케도니아인들은 돈이 좀 있지만 부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린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쓴 후 이곳에서 마케도니아로 여행을 가면서

고린도후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는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후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고린도후서를 보냅니다. 꼼찍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바울은 “이봐, 내가 가서 예루살렘의 기근을 겪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해. 내가 갈 때 줄 준비가 되어 있도록 돈을 준비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구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은 어디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간청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돈을 줄 것을 간청하는 좋은 구절을 찾고 있다면 고린도후서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읽고, 그는 마케도니아인을 치고,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모두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는 고린도로 내려와 그곳 사람들을 만난다.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은다. 그런 다음 그는 고린도에 있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다시 방문하고 이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이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새로운 영토에 관심이 있는 선교사이므로 고린도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로마서를 쓸 것이다. 고린도에서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그는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

로마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로마에 가서 언젠가 여러분을 만나러 갈 것 입니다.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는 로마서를 써서 그들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해 왜 멋진가요? 세 번째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보낸 3년입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어떤 책이 쓰여졌나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돈을 모으고 고린도를 떠날 준비가 되면서 로마서를 쓰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세 권의 방대한 책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모두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쓰여졌습니다. 여행. 그러니까 폴은 여기서 매우 생산적이예요. 책을 읽으면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제 생각에는 20장 9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전화를 걸어, 그의 여기 돈은 마케도니아로 돌아가서 돈을 모으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만나지만 다시 들립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트로아스에 있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20장 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 학생 중 몇몇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백성에게 말하니 이튿날

떠나려고 하여 자정까지 계속 말하니라. 그들이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었는데, 바울이 계속 말하는 동안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3층 창문에서 땅에 쓰러졌고 죽은 사람처럼 일으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설교를 계속하는 동안 유두고가 잠이 드는 장면이에요 . 가끔 신약 성경 수업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어쨌든, 그는 3층 창문에서 떨어집니다. 그는 쓰러지고 잠이 듭니다. 그들은 그를 죽은 줄 알고 들어올립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고쳐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로아스에 있는 유두고 의 이야기 입니다.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고 바울이 사람들을 잠들게 한 적이 있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M.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과 투옥 [67:45-73:22]

바울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에게는 꽤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것을 빨리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카이사레아 지역에 도착했고 거기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아가보는 이 허리띠를 벗기고 바울의 손을 묶고 “이 허리띠를 두른 사람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묵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아가보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 . 그런데 아가보는 선지자이지 글을 쓰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빌립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빌립은 네 명의 예언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을 꾸짖은 나단조차도 실제로 예언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미가야도 마찬가지였고, 여 선지자 홀 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이사야 ,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외에도 실제로 정경 선지자를 쓴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저 말을 하는 선지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가보는 그런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바울을 묵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 바울아. 그렇지 않으면 곤경에 처하게 될 거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나를 데려가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 이 돈을 모아야 해. 내가 올라가겠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는 성전 산에 있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인들이 들어와 바울은 그곳에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사도 행전 24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루고 싶었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로마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었고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군인 중 한 명, 여기서 제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22장입니다. 25절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은 성전 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나와 바울을 끌고 가서 바울을 바로 산헤드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날까지 모든 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그 직전에 그들은 바울을 잡아당겨 채찍질하라고 지시할 예정이었고, 로마인들은 바울이 이 폭동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안토니오 요새로 끌고 가서 채찍질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잡아당겨 채찍질하려고 하자, 사도행전 22:25에 바울이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죄가 선고되지도 않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백 명이 넘는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지휘관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부장이고 그는 지휘관에게 갔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 군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바위에 가면

New Imperial Hotel 바깥 바위에 "X"가 보일 것입니다. Get Lost in Jerusalem 에 들어가면 실제로 거기에 가서 거리를 걸으며 New Imperial Hotel에 갈 수 있고 저기 작은 표지판에 작은 "x"가 보일 것입니다. 즉, 열 번째 군단입니다. 로마인들은 나중에 거기에 군단을 주둔시켰습니다. 지휘관은 바울에게 가서 "말해 보세요, 당신은 로마 시민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 큰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제가 시민으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시민권을 얻기 위해 큰 돈을 치러야 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큰 값을 치렀습니다. 저는 로마 시민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초기 교회 *폭스 순교자 책 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갔을 때 그는 "저는 주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서기 68년경에 죽었을 것이고 참수당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서기 64/65년에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약 3~4년 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은 큰 일이었습니다.

ㄴ. 제3차 선교 여행의 회고 [73:22-74:37]

이제 이 사람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먼저 썼습니다. 세레 요한의 제자들이 에베소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마법의 책들이 불태워졌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돈과 종교에 대해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는 은세공인으로서 돈을 잃고 있었고 아무도 그의 우상을 사지 않아서 화를 냈습니다. 종교는 공공 광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가 마케도니아를 다시 방문했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좋은 기부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를 써서 그가 올 때를 대비해 자금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 그는 고린도에 도착했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는 동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16장으로 구성된 로마서를 씁니다. 그는 마케도니아를 다시 방문하고, 유두고는 트로아스에서 잠들고, 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기근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 바울의 시련: 펠릭스 [74:37-77:24]

G: 0-S 결합: 74:37-84:49; 바울의 투옥, 로마로의 항해

이제 그의 재판에서 그는 잡혔습니다. 그는 거의 채찍질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펠릭스 앞에 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4장에 있습니다. 펠릭스가 한 일은 펠릭스가 바울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펠릭스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했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펠릭스가 여기서 몇 가지 의견을 말합니다. 이것은 24장입니다. 두 펠릭스 모두 그것을 나사렛 종파라고 부르며 바울이 나사렛 종파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사렛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나사렛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에는 유대교의 또 다른 종파로서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서 불화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 아래에 있는 한 그들은 로마인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서 빠져나왔을 때 기독교가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길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 길은 또한 기독교가 여기에서 분류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펠릭스는 마냐나 ,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카이사레아로 보내서 펠릭스에게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펠릭스가 바울을 데려오자 그는 그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알다시피, 내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펠릭스가 원했던 것이 뇌물이었다고 알려줍니다. 펠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원했습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와 다른 곳에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펠릭스는 이 행동에서 몫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뇌물을 원했고 바울은 옅바 바로 북쪽 해안에 있는 카이사레아에서 펠릭스의 지휘 하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텔아비브]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나요? 누가 그와 함께 있었나요? 누가 그와 함께 있었으니, 누가 팔레스타인에 2년 동안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가는 아마도 마리아와 사도들을 인터뷰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내 누가복음에서 가장 뛰어난 데오필로에게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누가는 또한 무엇에 대한 책을 쓸까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여기 펠릭스, 페스투스, 바울이 누가를 데리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법정 소송을 돕기 위해 가장 뛰어난 데오필로에게 사도행전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펠릭스는 나쁜 미루는 사람으로, 바울에게서 2년 동안 뇌물을 원했습니다.

P. 바울의 재판: 페스투스 [77:24-78:38]

이제 펠릭스가 사라지고, 페스투스가 다음 종류의 총독으로 등장합니다. 페스투스는 블록의 새로운 아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야, 페스투스, 네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 네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산헤드린으로서, 유대인 사법 기관으로서 우리가 바울을 재판해야 한다. 그러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페스투스는 유대인들이 카이사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유대인들이 그를 매복하고 가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없었고 바울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은, 바울이 함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저는 카이사르에게 호소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카이사르에게 호소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카이사르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페스투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로마 총독으로서 바울을 카이사르에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는 고발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고발로 그를 로마로 보낼 것입니까? 고발이 없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그림에 등장합니다.

질문. 바울의 재판: 아그립바 [78:38-80:55]

아그립바라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페스투스와 아그립바는 바울을 두고 친구가 됩니다. 아그립바는 길을 알고, 나사렛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26장에서 바울과 아그립바가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으로 손짓하고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아그립바 왕, 저는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인들의 모든 고소에 대해 변론하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관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립바 앞에 와서 아침하며 “당신이 우리 관습에 대해 많이 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질문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아그립바에게 약간 공격적으로 변론하고 실제로 아그립바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페스투스가 하는 일이 흥미롭습니다. 페스투스와 아그립바가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페스투스는 바울의 변론을 방해했습니다. 이것이 페스투스가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24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는 소리쳤습니다. "네 큰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고든 칼리지와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 그들의 큰 학식이 그들을 미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페스투스는 바울이 매우, 매우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큰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그런 다음 바울은 아그립바에게 가서 실제로 아그립바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그립바가 반대하며 그는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거의 설득된 것입니다. 그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사람을 가지고 있고, 길을 가지고 있고,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그립바는 "거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 거의 그러나 잃어버렸습니다.

R. 난파선 - 사도행전 27 [80:55-82:24]

이제 아그리파는 페스투스가 혐의를 제기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배에 태워서 다시 배로 실어 보낼 것입니다. 배가 출발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카이사레아는 지중해를 건너 몰타 섬으로 건너가고,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고대 세계에서 난파선에 대한 가장 좋은 묘사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배에 파도가 밀려와 모든 화물을 배 밖으로 던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죄수들을 배 밖으로 던지고 싶어했고 바울은 "그렇게 하면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장에게 조언을 했고, 그들은 시칠리아 바로 아래에 있는 몰타 섬에서 난파선으로 끝납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몰타 섬에 도착했고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뱀이 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인범이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로마에 가야 한다는 혐의를 받았으므로 살인범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바다에서 나왔지만 독사가 그를 물었고 바울은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뱀을 다시 불에 던져 뱀을 죽이고 바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맙소사, 이 사람은 신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뱀에게 정의를 받는 살인범에서 몰타 섬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결국 몰타 섬에서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S. 로마의 투옥 [82:24-84:49]

그들은 서기 60년경에 로마를 강타했는데, 이것을 1차 로마 투옥이라고 합니다. 1차 로마 투옥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 로마 투옥이 있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 2년 동안 로마에 갇혀 있었고, 아마도 사도행전과 가장 훌륭한 테오�필리오와 사람들이 바울이 풀려나는 것을 도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1차 로마 투옥 이후에 풀려났고, 그 후 자유의 기간이 있었고, 그 후 2차 로마 투옥이 있었고, 이것이 끝입니다. 서기 67-68년입니다. 바울은 참수당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2차 로마 투옥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투옥은 두 번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은 1차, 2차, 3차로 세 번 있었습니다. 그 후 1차 로마 투옥, 약간의 자유, 그리고 2차 로마 투옥을 위해 돌아왔는데, 그때 그는 아마도 참수당했을 것입니다.

여기 실제로 이것을 통과하는 지도가 있고,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 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는 카이사레아에서 항해하고 그들은 폭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칠리아 바로 아래에 있는 몰타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시칠리아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시칠리아 피자를 먹나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로 올라와 로마에서 첫 번째 로마 투옥과 사도행전이 끝나는 곳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의 끝에서 바울의 재판 결과를 알고 있나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모릅니다. 사도행전은 기원후 64년 이전에 끝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카이사르 앞에서 바울의 재판 결과를 모르고 기원후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침묵은 사도행전이 바울의 재판이 실제로 끝나기 전에 아마도 닫혔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이 데오필로에게 쓰여져서 데오필로가 바울을 돕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입니다. 가장 뛰어난 테오필루스께서 바울 편에 서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시작할 때 그만둘 것 같아요. 바울의 책과 그 책들이 쓰여진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역사와 신학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하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를
파헤치면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anna Dalfonso가 필사함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Rough